

전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재검토 촉구

김민석 민주당 대표 면담 제도 보완 요청
‘미래대응기금’ 관련 교육 현장 우려 전달
법정·비법정전입금 이행 현황 공개도 요구
◆김대표 “교육재정 방향·대안 충분히 논의”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에게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안정적인 초·중등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날 면담에는 권순기(경남) 지방교육재정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전남광주)·강은희(대구)·도성훈(인천)·조용식(울산)·윤건영(충북)·이병도(충남) 교육감 등 총 7명이 참석했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을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축소해서는 안되며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교·학급 운영에 필요한 기본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노후 교육시설 개선 등 새로운 재정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령인구 변화율 35% 적용 근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와 정부 개편안 간 재정 전망 비교,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 및 사용자 결정 방식, 새로운 산식의 기준금액 약 7조6천900억원 산정 근거 등 주요 쟁점을 제기하고 국회가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편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육감들은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될 경우 초·중등 교육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의 사용처와 재원 배분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될 수 있는 초과 세입의 상당 부분을 흡수하는 구조인 만큼 교육재원이 다른 분야로 분산되거나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미래대응기금 사용자에 초·중등 교육을 명확히 포함하고 정부의 재정 여건이나 정책 방향에 따라 교육재정 규모가 크게 변동하지 않도록 지속 가능한 재원배분체계를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교육감들은 “지난달 29일 진행된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시도지사 협의 내용에 교육계와 충분히 공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기금의 재원 구성과 규모, 사용자, 배분 방식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시·도교육감과 교육계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에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법정전입금 미지급·지급 지연과 비법정전입금 축소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0항에 따라 법정전입금의 시·도별 전출 실적은 이미 교육부와 국회에 보고되고 있는 만큼 기존 자료를 토대로 미지급액과 지급 지연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게 교육감협의회회의 입장이다.

교육감들은 전남광주 통합 과정에서의 법정전입금 축소 우려, 무상급식비 등 비법정전입금 감소, 노후학교 개선과 학교 신설 수요, 다문화 학생 증가 등 지역별 교육재정 현안과 여건도 함께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미래 대응과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재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교육재정의 방향과 대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당 차원의 토론회도 열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전남대 동물병원 고양이 진료센터 개소

전남대학교 동물병원은 최근 이근배 전남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이 진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새로 조성된 고양이 진료센터는 총면적 185㎡ 규모로 고양이 전용 대기실과 진료실 2개, 입원실을 갖췄다. 고양이가 병원을 방문할 때 다른 동물과 접촉하거나 소음·냄새에 노출되면서 겪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동물병원 2층에 공간을 구성했다.

<전남대학교 제공>

한국에너지공대 ‘에너지 AX 대학원’ 선정

6년간 190억 투입 AI 혁신인재 양성

에너지 특화 AI 교육·연구기반 구축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가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사업(AI 대학원)에 최종 선정돼 에너지 분야 AI 혁신인재 양성을 본격화한다.

켄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공모한 이번 사업에서 ‘에너지 AX 대학원’으로 최종 선정됐다.

공모에는 옛 전남도와 나주시의 대응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전력공사, ㈜티디엘과 공동 연구체계를 구축해 참여했다.

에너지 AX 대학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주력 산업인 전력망 등 에너지 시스템과 2차전지 등 에너지 소재 분야에 특화된 실무형 최고급 인재를 양성해 지역산업 혁신에 기여할 계획이다.

켄텍은 올해부터 6년간 약 100여명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AX 대학

원을 신설하고 최첨단 AI 교육·연구를 위한 교육 과정 개발과 실습·연구 인프라 구축 등 기반을 조성한다. 2026년 2학기부터 신입생을 모집해 교육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는 연구책임자인 김종권 에너지 AX 대학원장 겸 에너지AI 연구소장을 중심으로 켄텍 교수진 16명이 참여한다. 이들은 세계적 수준의 에너지 AX 연구를 수행하고 연간 약 40명씩 6년간 총 250여명의 글로벌 창의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김재정 기자

동신대, 경찰과 함께 캠퍼스 안전점검

학생 요청 반영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 강화

동신대학교 인권센터가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찰과 함께 캠퍼스 곳곳의 안전을 꼼꼼하게 점검해 호평받았다.

동신대 인권센터는 최근 나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범죄예방진단팀과 함께 교내 불법촬영 예방과 범죄 취약 요인 개선을 위한 교내 불법촬영 점검·방법 진단을 실시했다.

합동 점검은 “안심하고 대학생활을 할 수 있는 캠퍼스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학생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시행됐다.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점검

해 불법 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예방 관점에서 교내 환경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인권센터와 나주경찰서 관계자들은 교내 화장실 등 불법 촬영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 주변 범죄 취약 요인과 방법 환경을 점검했다. 방법 진단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주경찰서 전문가 교육도 사전에 진행했다.

동신대 인권센터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사항을 지속 개선하는 한편, 불법 촬영을 비롯한 각종 범죄 예방 활동과 구성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차수봉 동신대 인권센터장은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드는 것이 학생 인권의 출발점”이라며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재정 기자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